

대상포진은 HIV 감염을 의심해야 할 신호

글_오명돈 ·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칸디다증, 폐포충 폐렴, 결핵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국내 에이즈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기회질환 중 대상포진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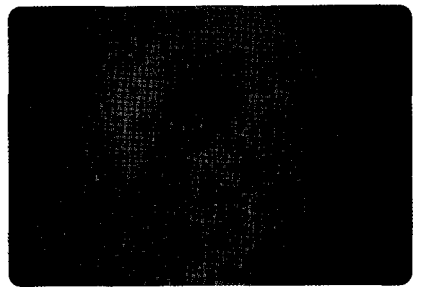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면 이마에 나타난 붉은 반점을 본 직장 동료가 주인공의 HIV감염을 의심하여, 주인공이 결국 직장에서 해고 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주인공은 피부병이 나타난 지 몇달만에 결국 폐렴으로 죽게 된다.

내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는 피부에 무엇이 나타나면 몹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에이즈가 발병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걱정은 아마 영화 “필라델피아”가 상영되면서 피부 질환이 발생하면 곧 이어서 에이즈가 발병하게 된다는 오해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영화의 주인공이 앓았던 피부병은 카포시 육종이다. 이 병은 자줏빛을 띠면서 조금 위로 볼록 솟아 있는데, 만져보면 혈관처럼 조금 물렁물렁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면역능이 매우 저하된 말기 에이즈 환자에게 나타나는 피부암의 하나인데, 각테일 치료가 시작되면서 면역능이 이런 정도까지 떨어지는 환자는 드물기 때문에, 이제는 카포시 육종도 보기 어렵게 되었다.

대상포진은 감염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피부병

카포시 육종과 달리 매우 건강한 상태의 HIV감염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병은 대상포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HIV 감염인에게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피부병이 바로 대상포진이다. 이 병은 처음에 피부가 여드름 크기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며칠이 지나면 그 속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물방울처럼 맑게 보이던 물집이 점차로 노랗게 고름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긴 병변이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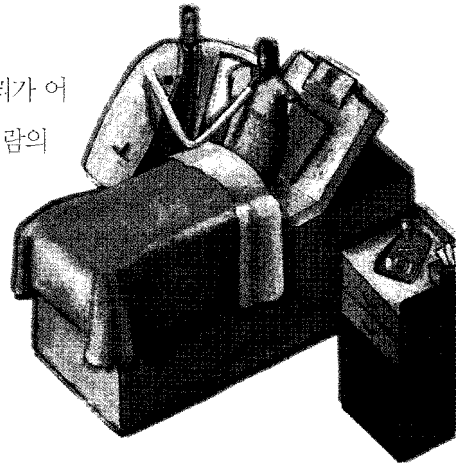
▲ 대상포진

개 나타나는데, 아무 곳이나 흩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 그들을 이루면서 마치 띠(대상이란 띠모양이라는 한자입)모양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이러스인데, 대상포진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앓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로 수두 바이러스다. 수두를 앓은 사람의 몸속에는 수두바이러스가 잠복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여 나타나는 병이 바로 대상포진이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매직 존슨은 1991년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매직 존슨은 이런 사실을 밝히기 바로 직전에 대상 포진에 걸렸는데, 대상 포진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이러스인데, 대상포진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앓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로 수두 바이러스다. 수두를 앓은 사람의 몸속에는 수두바이러스가 잠복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여 나타나게 되는 병이 바로 대상포진이다.



왜 생기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매직 존슨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 마당에 더 이상 감염 사실을 숨겨서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대상포진 환자 진료시엔

HIV 검사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시절에 수두에 걸리는 일이 흔하므로, 어렸을 적에 앓은 수두 바이러스를 잠복 감염 상태로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많다. 보통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는 면역력이 튼튼하여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점차 떨어지게 되므로 50세가 넘는 사람들에게 대상포진이 나타난다. 즉, 대상포진은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50세가 넘으면 나타날 수 있는 노인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체가 에이즈가 유행하기 이전에는 대상 포진에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만일에 젊은이에게 대상 포진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이다. 피부에 나타난 대상 포진은 우리에게 "당신의 면역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HIV에 감염된 것이나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만일에 대상 포진으로 병원에 온 환자에게 대상 포진만 치료하고, HIV 감염 여부를 검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일 이 환자가 HIV감염인이라면 이 사람은 몇 년 후에는 치명적인 기회 감염증에 걸려 복숨을 앓을 수도 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독성이 강해서 HIV감염인에게 발생하는 결핵, 뉴모시스티스 폐렴과 같은 기회 감염들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상포진이 나타난 시점에서 HIV감염이 진단되면, 각테일 치료를 하여 나중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대상포진 환자에 대해서는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매직 존슨은 대상포진으로 HIV 감염 사실이 일찍 발견된 덕분에 발병하기 전부터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건강하게 사업가로 변신하여 지금도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감염인의 피부질환은 대부분 가벼운 것

HIV에 감염된 사람들에게는 피부 발진이 흔히 나타나며, 그 모양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피부 모양만 보고 "저 사람은 HIV에 감염되었구나"라든지 또는 "저 사람은 이제 에이즈가 발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피부병은 없다. 카포시육종은 면역력이 몹시 떨어진 암환자나 이식환자에게도 나타나며, 대상포진도 스트레스를 몹시 받는 고3수험생이나 신병훈련소에 입대 한 군인에게 발생하는 수가 있다.

또한 HIV감염인의 피부질환은 가벼운 것들이 대부분이며, 피부질환이 진행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감염인들은 자기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받도록 하자.